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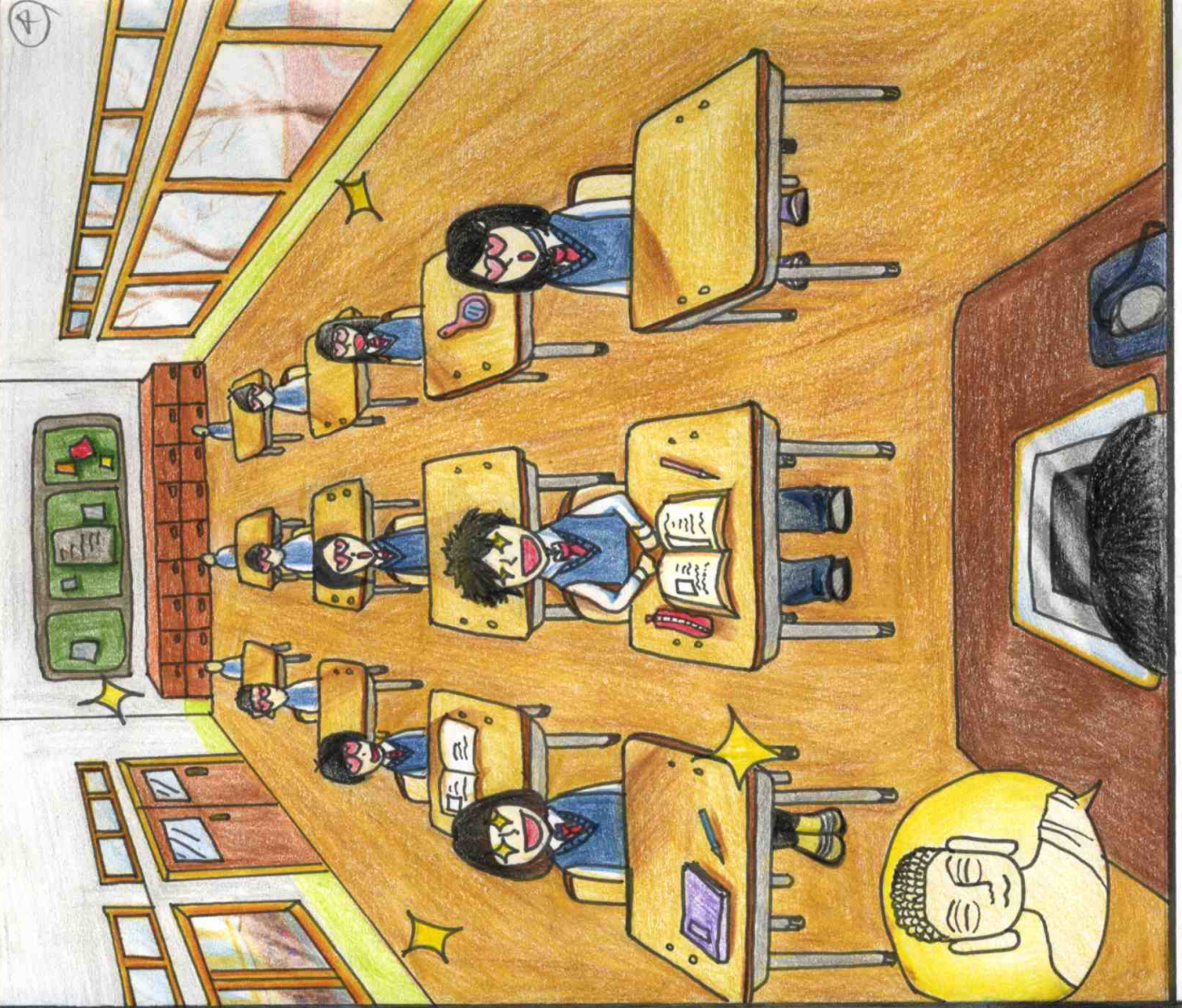
수업 시간, 아이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다.



이런 시간은 새로 오신 역사 선생님이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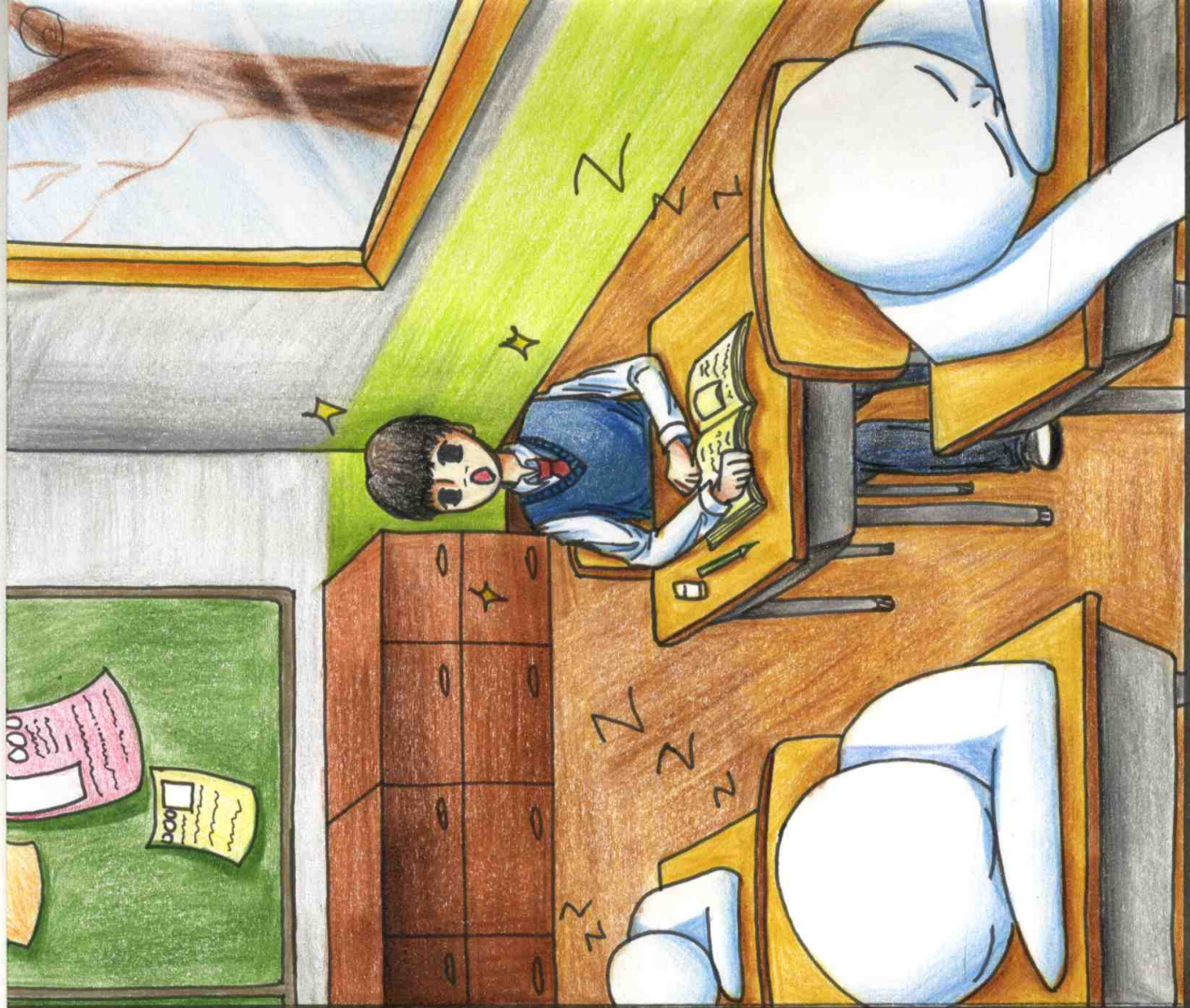
How handsome!



잘생긴 선생님의 등장에 환호하는 아이들...  
“자 이번 시간엔 자랑스런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된 석굴암에 대해 배워봅시다.”



문화재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도 없는 아이들은 서서히 즐기  
시작 한다.



선생님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 하셨다.  
이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선생님의 말씀을 귀심히 듣는 해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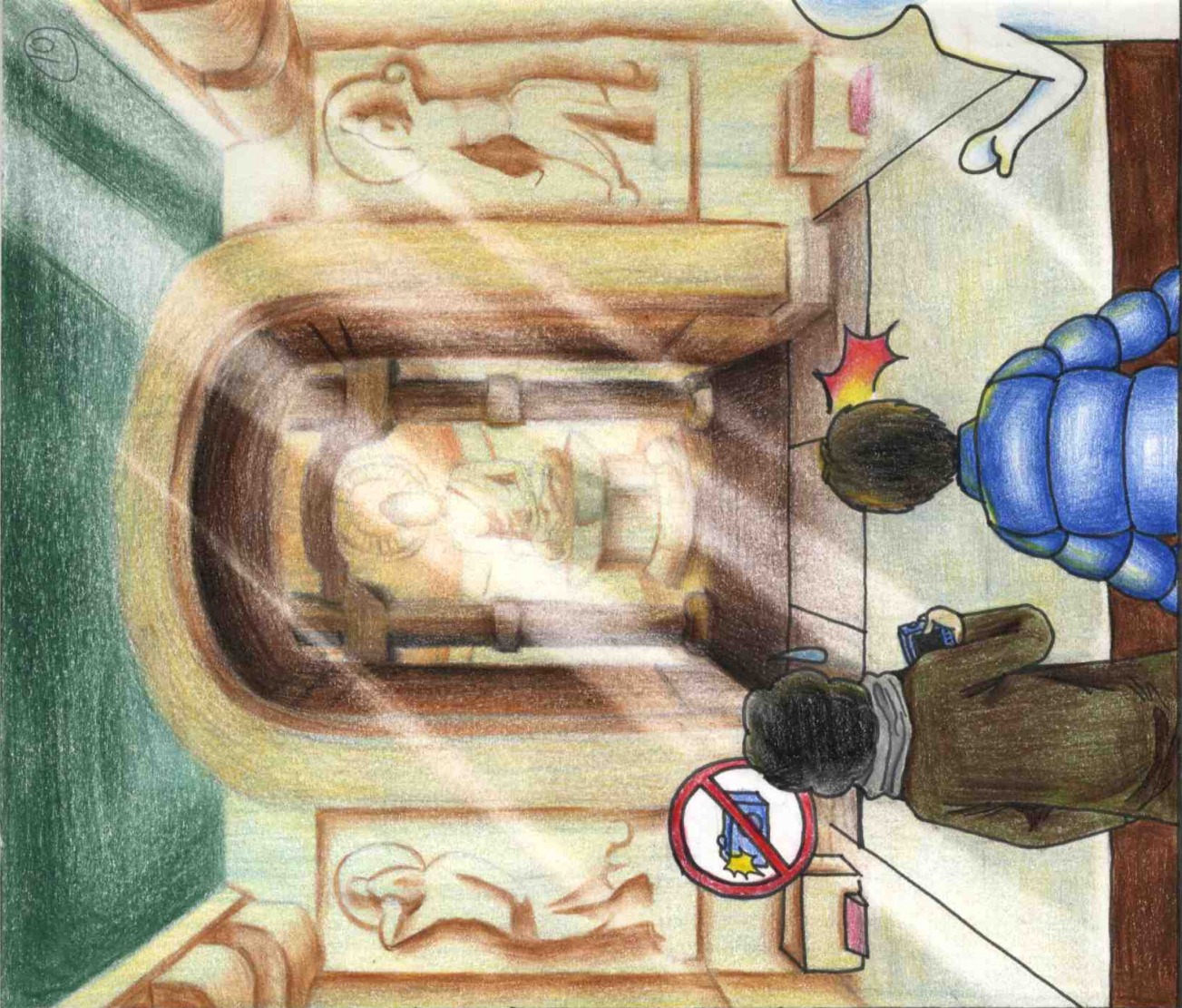
석굴암은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와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보배로써, 그것을 알게되면 우리의 문화유산을 사랑하게 될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쑥을 들은 해송이는 이번 주말에 엄마와 함께 석굴암에  
가보리라 마음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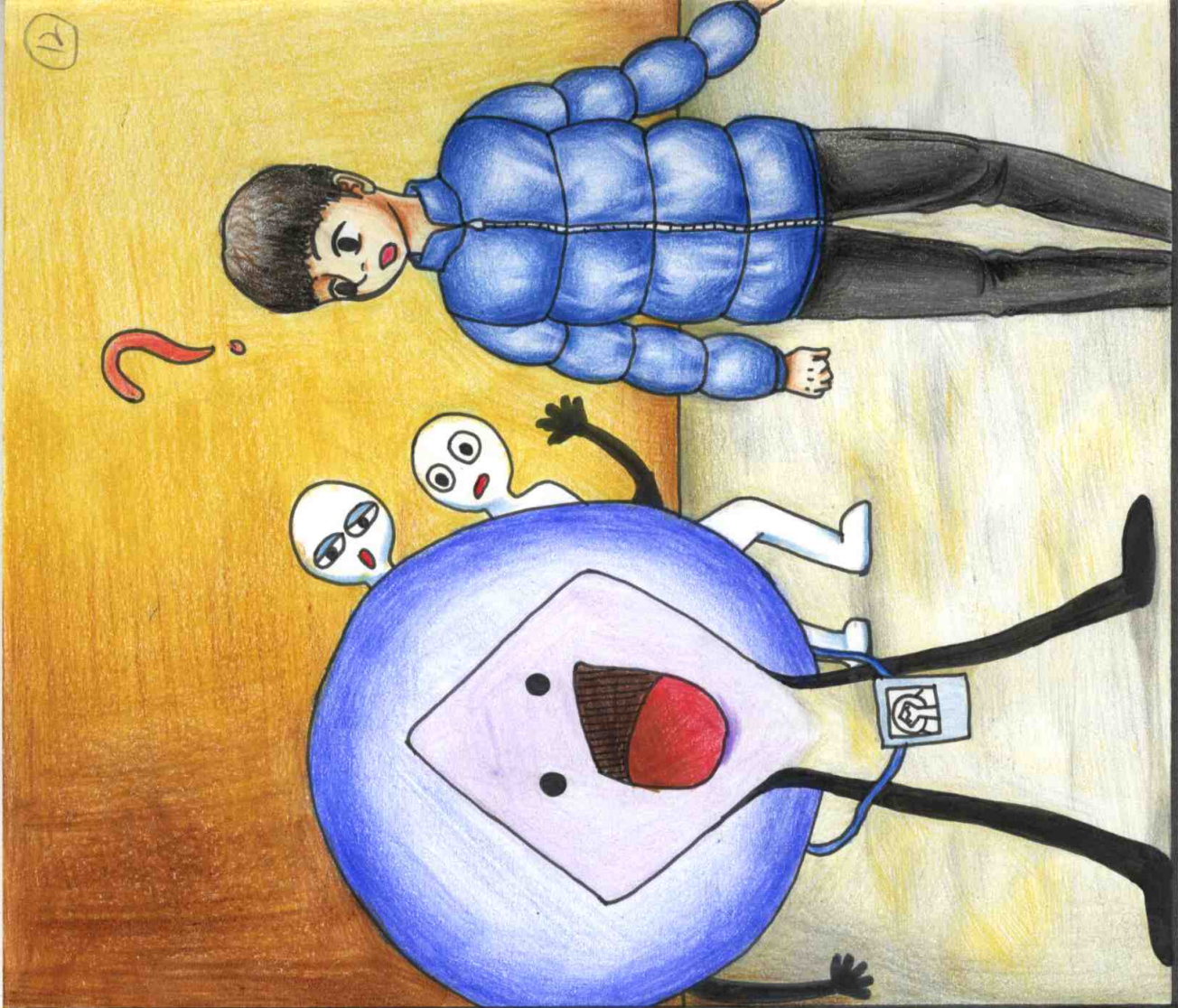
주말이 되자, 해룡이는 엄마와 함께 석굴암으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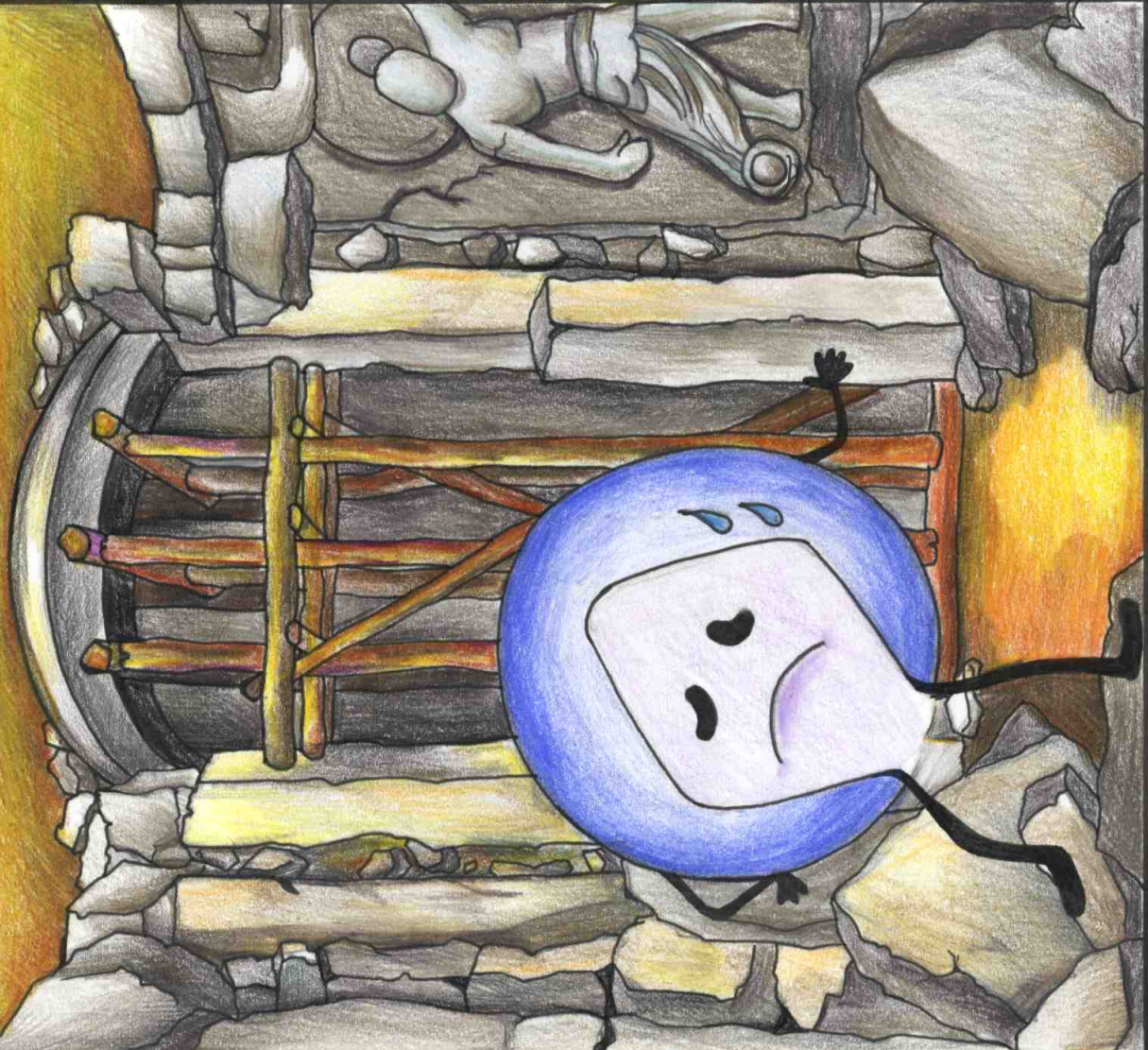
도착해보니, 방문객이 유리벽이 유리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송이는 석굴암의 위대함보다 유리벽에 가로막혀버린 문화재의 안타까움을 더 크게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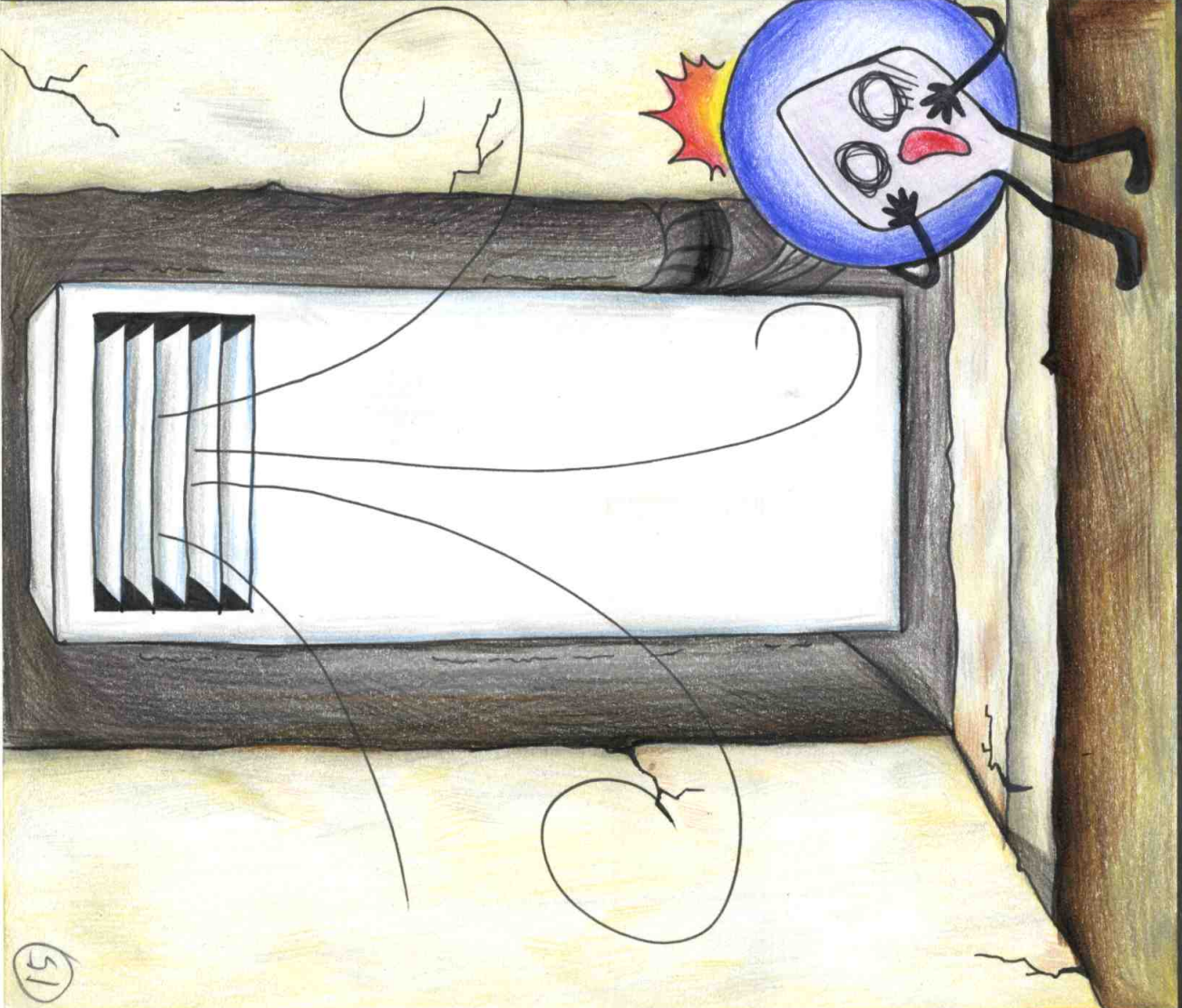
그때, 문화관광 해설사인 파트리모니토 씨가 해송이에게 다가와 석굴암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원래 석굴암은 장마기에도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졌으나, 일제 시대때 일본 사람들이 석굴암을 보수공사 한 이후로 석굴암에 있던 자연적인 제습기능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그때부터 석굴암은 제습이 되지않아 서서히 훼손되어져 지금은 벽속에 제습기를 설치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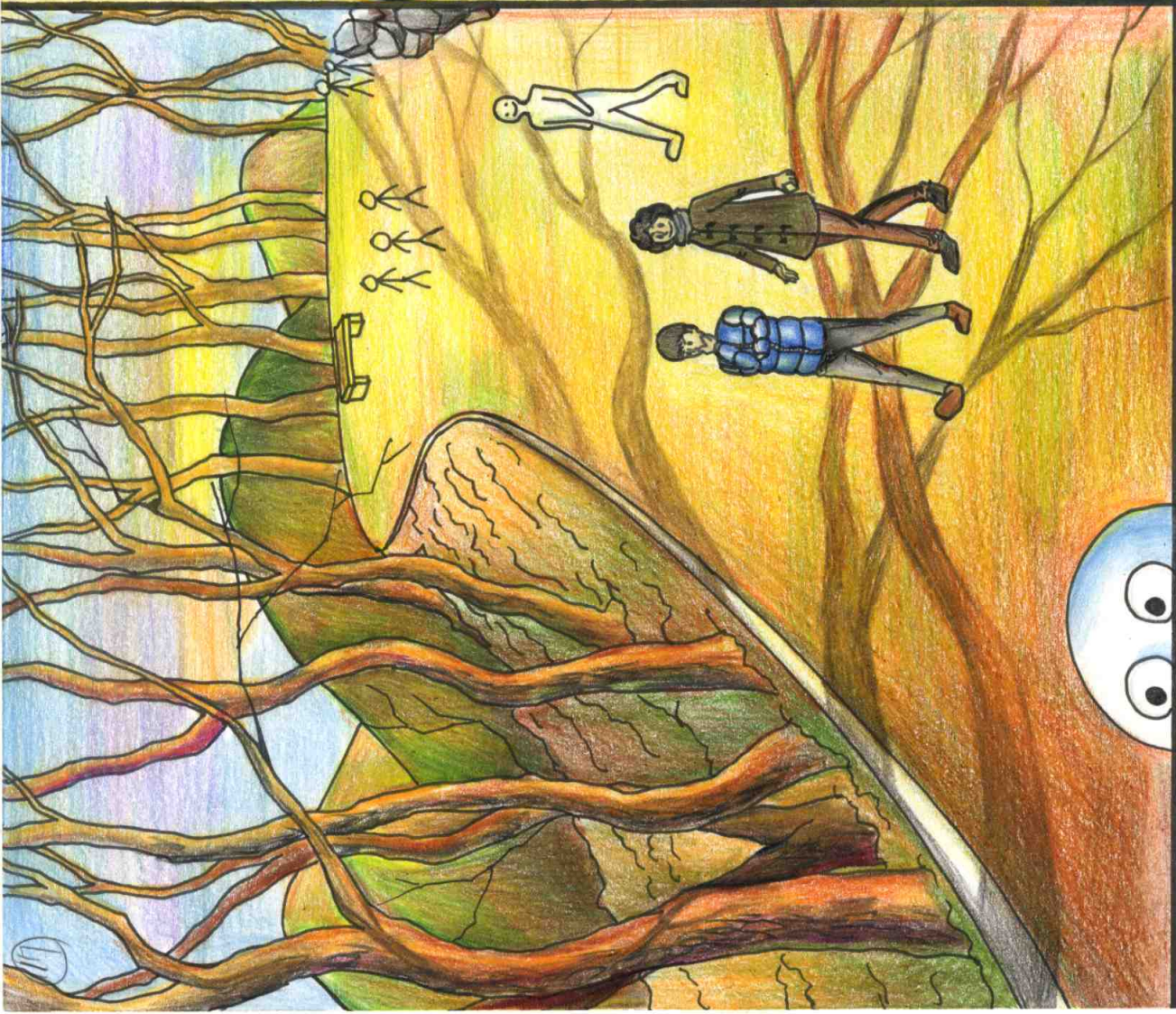


하지만, 제습기의 미세한 진동으로 인해 석콘암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다 한다.



우리 민족의 유산, 석콘암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의 관심과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며 파트리모니토 씨는 사라진다.





도함산을 내려와 건, 해송이는 눈썹불이 왜 우리벽으로 막혀있는지  
 알 것 같았다. 해송이는 석공암을 위해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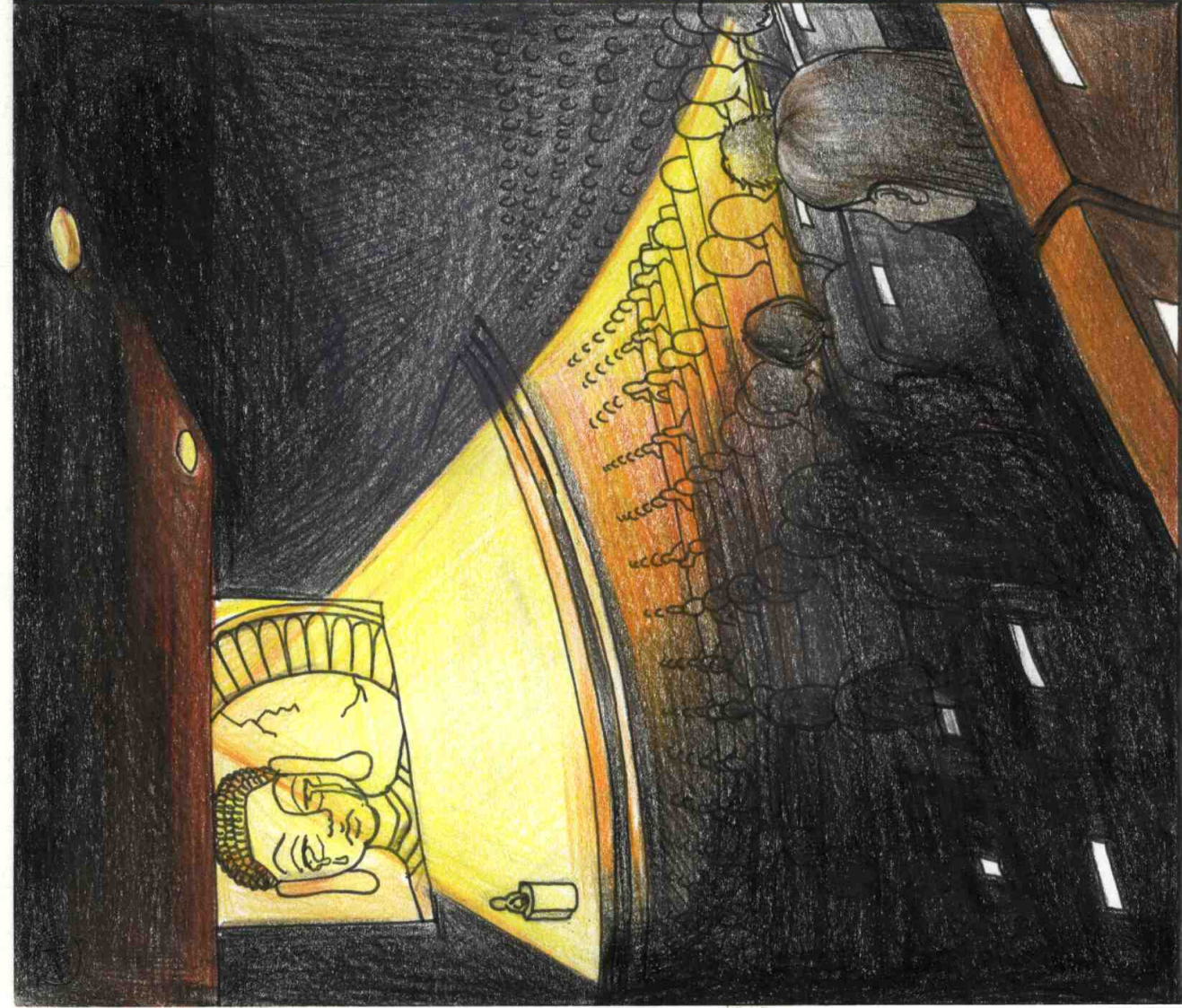
그날밤, 해송이는 석공암이 습 때마다 물방울이 가득 맺혀서,  
 마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은 꿈을 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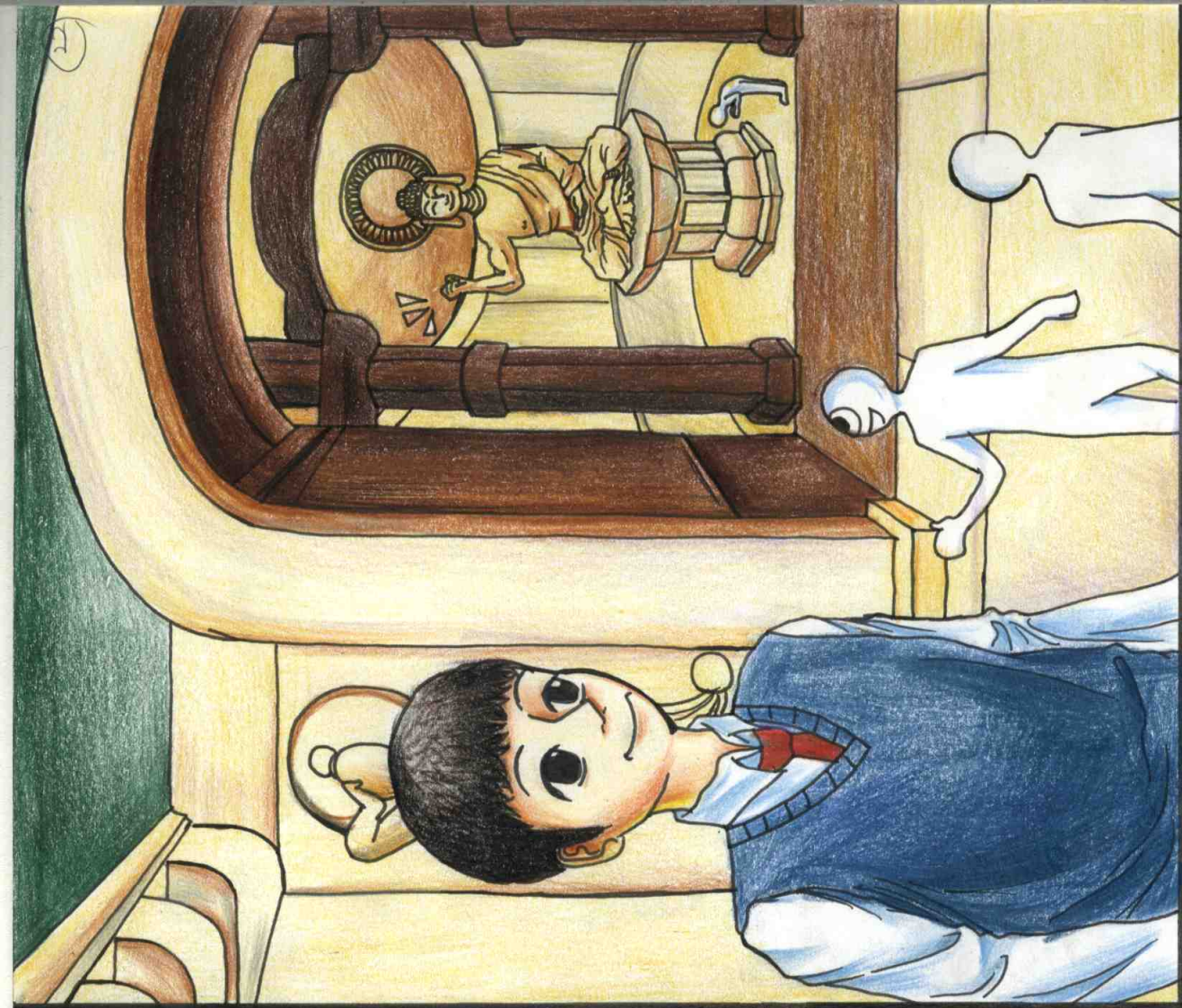
잠에서 깬 해송이는 보간불의 눈물은 떠올리며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래서 해송이는 '석굴암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친구들과 영화를 만들어  
 청소년 영화제에 출품하게 된다.



석굴암의 역사와 안타까운 현실을 표현한  
'석굴암의 눈물'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고 ...



사람들이 석굴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해동아는  
석굴암을 가로막고 있는 유리벽이 언젠가 사라질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